

하나님의 눈 ♪

대학 4년 동안과 대학원 2년 동안 내게 라틴어를 교수해 주시던
파울로스 교수님에게서 배운 것 두 가지를 꼽는다면,
하나를 라틴어이고, 하나는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는 마음입니다.
대학을 졸업할 즈음 같은 학과 친구와 함께 교수님 댁을 찾아가
잠깐 만나 뵙고 나왔지만,
그때의 방문이 나에게는 두고두고 기억되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분과 나누었던 대화는 한 가지도 기억나는 것이 없습니다.
기억나는 것은 오직 그분의 방에 붙어 있던 라틴어로 쓰여진
짧은 문구였습니다.
"Me Vidit Deus" (메 비디트 데우스,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
한참 신앙적으로 살아보겠다고 결심하고 있던 터이라
그 문구는 유별나게 마음에 큰 감명을 주었습니다.

나를 바라보고 계신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생활한다는 것이
정신적으로는 큰 부담이 될 수도 있겠으나,
그 눈을 의식하며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Coram Deo, 코람데오)
산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진지한 삶의 자세일까요?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사람의 눈'을 의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옷을 입으면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아줄까?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다른 사람이 어떻게 볼까?
이래서 세상 사람들은 흔히 눈치 생활에 익숙해지게 되고
체면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사람의 눈'에 잘 보이려고 노력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의 비위를 맞추려고 노력하기도 합니다.
이런 삶의 자세에 비교한다면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사는 생활은 얼마나 귀한가요?

출처 - 무엇이 삶을 아름답게 하는가 / 김득중 (2002/04/24)

♪ 여러분의 가장 깊은 한숨을 아시는 그 분을 만나십시오. 「더 깊은 묵상」 제공